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현대중, 단체헌혈로 혈액수급 동참 현대중공업은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5일, 6일 이틀간 사내에서 2차 단체헌혈을 진행한다. 이번 헌혈에는 현대중공업 외에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MOS 등 울산지역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한영석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헌혈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알보젠코리아, 대구·경북에 1000만원 구호 성금 알보젠코리아가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에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구호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왼쪽부터 알보젠코리아 유병희 이사와 굿피플 정권상 운영부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알보젠코리아

유한킴벌리, 대구에 마스크 100만개

유한킴벌리가 대구 지역 의료진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 100만개를 기부한다.

유한킴벌리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유한킴벌리는 이달과 4월 중에 크리넥스 KF 80 35만매, KF 94 35만매, 덴탈 마스크 30만매 등 총 100만매를 대구적십자사를 통해 대구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기부한 마스크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회사측은 아울러 사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도 마스크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로레알, 취약층 위생용품 구매 2억 기부

로레알 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한국 자회사인 로레알코리아와 로레알 그룹 최초의 한국 패션 & 뷰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 스타일난다를 통해 대한적십자사에 지난 4일 2억원을 기부했다고 5일 밝혔다.

로레알이 기부한 성금은 마스크, 손세정제 등 필수적인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및 취약가



정을 돕는데 쓰일 예정이다.

로레알코리아 대표이사 크리스티앙 마르코스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이처럼 어려울 때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기부의 배경을 밝혔다. /조효정기자 princess@

bhc치킨, 감염병 위기극복 위해 4억 전달

bhc치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지원을 위한 성금 4억 원을 기부했다.

bhc치킨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bhc치킨이 기부한 성금은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



역을 포함 전국 노인·장애인·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방역물품, 긴급구호 물품 등 지역사회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kmj@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수면 중 코를 심하게 골거나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호흡 정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을 의심해봐야 한다.

수면무호흡증이란 말 그대로 수면 중에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이다.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춘다면 수면무호흡증, 시간당 5회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기류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키며 발생하는 호흡 잡음이다.

반면 코골이에서 시작되는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최소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말하며, 시간당 5회 이상 증상이 반복되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일 가능성이 크다. 통계조사 결과

전체 인구의 1~2%가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고, 여성보다는 중년 남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면무호흡증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산소공급에 차질이 생겨 심폐혈관계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결과만 보더라도 불면증과 심한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각각 8배, 17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만성피로나 비염, 코막힘, 급격한 체중증가, 잘못된 생활습관, 잦은 음주·흡연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 평소 호흡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어린이도 예외는 아니다. 선천적으로 기도가 좁거나 편도가 크면 코골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나이가 들면서 증세는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정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수면무

호흡증을 예방하려면 올바른 수면습관과 체계적인 다이어트, 금연 및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잠을 잘 때 똑바로 누우면 허가 뒤로 밀리면서 목구멍이 좁아져 코골이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가능한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다.

또 비만은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한 연구결과 목둘레가 17인치(43.2cm) 이상이면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다이어트로 전체 체중의 10%를 감량하면 수면무호흡증 증상이 5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다면 수면 중 아래턱이 후방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턱을 앞으로 위치교정 시킨 후 기도를 열어주는 구강내 코골이 교정 장치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교정 장치를 착용한 뒤에도 증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치료가 병행되어야 한다.

/민을신치과 원장

중소업체계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늘려달라”

이재갑 고용부장관 만나
코로나19 애로실태 등 전달

중소기업계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한 적극적 인가 등을 요청했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필요성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애로 실태를 전달하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준 휴업·휴직 수단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3분의2에서 4분의3까지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의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여전히 4분의1의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 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75%인 고용유지지원금을 중소기업은 90%까지, 중견기업은 80%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게 기업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왼쪽 4번째부터)이재갑 장관, 김기문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들의 요구다.

또 지난 1월 말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아 이참에 아예 코로나19와 무관한 업종도 신청시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등에 국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보다 늘려야한다는 입장

이다. 코로나19 충격이 수출 제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에 폭넓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2~4일 사흘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업종별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이벤트조합 소속의 전시·행사대행업체들의 경우 5월까지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제로(0)'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배재대 △인문사회대학장 이상원 △경영대학장 직무대리 백정웅 △자연과학대학장 겸 AI-SW창의융합대학장 강보순 △문화예술대학장 김홍실 △관광축제한류대학원장 정강환 △인문사회대학 부학장 임진섭 △자연과학대학 부학장 겸 AI-SW창의융합대학 부학장 전은미 △문화예술대학 부학장 정희용 △산학협력단장 채순기 △체육부장 최용재 △학사지원팀장 박진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소장 △물리표준본부장 강노원 △화학의료표준본부장 이상일 △산업응용측정본부장 송재용 △첨단측정장비연구소장 강상우 △양자기술연구소장

박희수 ◇실장·팀장 △정책실장 김완호 △연구전략실장 성은정 △기획실장 김양훈 △홍보실장 박혜린 △국제협력실장 황인용 △정보전산실장 김기태 △총무복지실장 최대우 △사업재무실장 박진선 △사업관리팀장 유희겸 △구매자산실장 한성 △시설안전실장 이일수

부음

▲배규석씨 별세, 배상일(여자 유도 국가대표 감독), 배연주씨 부친상 = 4일, 강원도 동해 전문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033-531-4740
▲김경기씨 별세, 김현주(전북도민일보 기자)씨 부친상 = 5일 오전 2시, 원광대학교병원 장

례문화원 306호(특실), 발인 7일 오전 8시, 063-855-1734

▲이배영(전 세계일보 편집국장)씨 별세, 이호성(자영업)·이인성(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 판매기획팀 부장)·이경숙씨 부친상, 고태훈(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 5일 오전 6시,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7일 오전 7시, 장지 전북 익산 원불교 영묘묘원, 031-382-5004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